

韓國 韓醫學의 發展 過程과 展望

- 1945년부터 1995년까지 광복후 50년동안의 한의학계를 돌아보며 -

鄭 遇 悅*

I. 머리말

1894년 갑오개혁으로부터 시작된 일제의 박해와 식민지통치를 거쳐 광복에 이르기까지 50년이 한의학의 암흑기였다면, 해방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50년간은 잃었던 한 의학을 다시 찾아 민족의학으로 자리매김 하여 이를 세계의학으로 끌어올린 발전기였다.

그러나 한의학계로서는 광복 후 50년동안 해방의 감격만큼이나 부풀었던 기대와는 달리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야만 하는 험난한 시기로, 현재까지도 한의학(韓醫學)은 수난과 투쟁의 연속인 한의학(恨醫學)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럼에도 현재의 한의학이 이처럼 괄목할 만큼 세계의학으로 발전한 것은 정부의 한의학에 대한 육성책에 힘입은 바도 있지만 그보다는 한의학계 자체의 자생적 노력과 20세기말에 접어들면서 서양의 동양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우리 나라에서도 이의 영향을 받아 한의학에 대한 인식이 재인식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왜 해방이 되었음에도 한의학은 계속 수난을 겪어야만 하였는가?

그 이유는 첫째, 1945년 8월 15일의 광복이 우리의 힘으로 성취된 진정한 해방이 아니라 미·소라는 강대국에 의해 이루어져 그들의 흥정에 따라 남북으로 갈려진 후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 속에서 남북의학이 발전과정을 달리 걸어왔다는데 있으며, 둘째는 남한에서는 3년간이나 미군정의 통치 아래에서 서양(특히 미국)식 의료체제를 그대로 받아들여 서양사고 위주의 의료정책을 시행하여 대한민국정부수립 후에도 우리의 실정에 맞는 의료정책의 개발없이 서구식 의료정책이 그대로 고착화되어 한의학이 제도권으로부터 소외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제50년이 일본의 식민통치였다면 해방후 미군정은 또 다른 제2의 식민통치의 출발이었다. 셋째로는 국내의 의학자 및 과학자들이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과학주의에만 도취되어 우리의 전통의학은 비과학이라는 성급한 단정을 내리고 한 의학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조건 서양의학만을 숭상한 사대주의적 학문태도에 있다.

따라서 광복 후 한의학사는 서양의 과학주의와 동양의 자연주의와의 충돌속에서 한의학이 서양의학에 의해 수모를 겪어 온 수난사이며, 또한 수난 속에서 민족의학인 한 의학을 지키기 위해 싸워 온 투쟁사였다.

*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 病理學敎室

그러므로 한의학을 논할 때 정부당국이나 서양의학계가 한의학계에 던진 사건들을 빼놓을 수 없으며, 또한 이에 대응하여 싸워 온 투쟁사를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다만 광복 후 50년간의 한의학의 의료정책과 제도적 변천, 한의학의 교육발전 및 한의학의 연구활동 등만을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룬 후 끝으로 한의학의 전망을 접쳐 보려한다.

II. 한의학의 의료정책과 제도적 변천

광복 후에는 일제의 한의학 말살정책으로 침체된 한의학의 회복을 위해 한의학의 법적지위권 확보와 후학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설립문제가 가장 주요과제로 등장하였다. 이 중 한의학의 법적문제는 그 동안 한의사가 1900년 의사규칙(醫師規則) 공포로 의사(醫師)가 되었다가, 1905년 을사보호조약 후에 일제 통감부의 한의학 말살정책에 따라 모든 관용의료에서 배제되었으며, 1913년에는 의생(醫生)으로 격하되는 등 갖은 시련을 겪어 고사(枯死)적전에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급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보사행정의 서양식 의료행정 위주와 양의사들의 한의사제도에 대한 강력한 반대로 국민의료법에 한의사법을 제도화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1951년 9월 25일 국민의료법 시행세칙이 보건부 제11호로 공포됨에 따라 우리 나라에 비로소 한의사제도가 정착하였다. 그러나 한의사제도는 그후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양의사 단체가 기회 있

을 때마다 폐지론을 들고 나와 많은 시련과 수난을 겪어야 했다. 그러면 국민의료법에 한의사제도가 정착된 후 한의학의 의료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어떠한 제도적 변천이 있었는가를 알아보자.

1. 한의사 제도의 확립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미군정은 한국 정부에 정관을 이양하여 제헌국회에서는 국민의료법 제정을 서둘렀으나 1950년 6. 25 동안으로 국회가 해산되고 정부가 부산으로 피난감으로 국민의료법제정은 무산되었다. 그후 국민의료법은 1951년 9월 25일 부산의 임시수도에서 소집된 국회에서 제정·공포되었다.

이 국민의료법에는 양의사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제도가 포함됨으로써 우리 나라에 비로소 의료이원화가 정착하게 된 것이다.

2. 한의사협회 결성

새로 제정된 국민의료법 제53조에 의해 각 의사회를 조직하게 되자 당시 부산지역 한의계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1952년 12월 10일 경남 부산시 토성동3가 13번지 동의제약사(東醫製藥社)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모두 12장 60조로 된 회칙을 통과시켜 한의사회가 창립되게 되었다. 초대회장에는 이우룡(李羽龍)이 당선되었고, 명예회장에는 진의(典醫)를 지낸 김영훈(金永勳)이 추대되었으며, 이 사건에는 박성수(朴性洙)와 10명이 뿔뿔했다.

1959년에 들어와 협회는 활성화되어 사단법인체로 개편되어 협회명칭도 "사단법인 대한한 의사 협회"로 변경되고 전문68조의 정관과 임기4년으로 이사수를 20명으로

늘렸다.

3. 국민의료법 개정과 한의사제도 폐지

1960년 4. 19 혁명으로 자유당 독재정권이 무너지자 그 동안 한의사제도에 불만을 품어 온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각종 양의사 단체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언론을 통하여 한의사제도의 폐지론을 발표하였고 아울러 의료법 개정안을 내놓아 한의사제도 폐지를 기도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기도노력은 5.16 군사쿠데타로 무산되었다가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그들의 힘을 업고 더욱 강경해져 1961년 6월 10일 국가재건최고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에서 마침내 국민의료법중 한의사제도 삭제 및 한의과대학 폐지를 통과시켰다.

그러므로 어렵게 정착된 한의사제도와 한의과대학이 하루아침에 존폐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전 한의계가 일치 단결하여 한의학 부활운동을 전개해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2년 3월 20일에 가결·공포한 한의사제도를 폐기하려는 전면 개정안인 의료법(법률 제1035조) 개정안을 포기케 하고 다음해인 1963년 12월 13일에 개정의료법이 공포됨으로써 고사(枯死)직전의 한의사제도가 다시 부활하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오히려 한의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한의과대학의 학업연한을 양의학 교육제도와 동등하게 4년제에서 6년제로 연장하였다. 한의사교육제도의 정상화를 되찾은 한의계는 대한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각종 학술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물론 국내의 학술대회를 유치하고 학술

진흥사업을 전개해 나갔다.

4. 한방전담기구설치와 한의학육성책

(1) 한방전담기구설치

국민의료법에 한의사제도가 확립되었지만 실제 정부가 한의사의 권익이나 한의학의 육성책을 위한 정책은 진부한 상태였다. 이는 정부기구에 한방과 관련된 기구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정부기구에 한방관련기구가 설치된 것은 건국 초기인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후 사회부에 “한방과”가 1948년 11월 4일에 설치되어 그 다음해인 1949년 7월 25일까지 존속되었다가 폐지된 바 있다. 이후 한방관련 행정사무는 의정국 의무과(1949. 7. 25 ~ 1967. 2. 11), 의정과(1967. 2. 11 ~ 1970. 1. 5), 의료제도 담당관(1970. 2. 13 ~ 1973. 3. 10), 의료제도과(1973. 3. 28 ~ 1974. 1. 4)에서 각각 맡아오다가 1975년 8월 20일에 제23차 보건사회부직제가 개편되면서 의정국에 한방의약을 전담하는 “의정3과”가 신설되었다. 그 후 “의정3과”는 동양의약관련 각종 의료제도 조사, 한방의료계의 현안문제와 행정지원사업·보수교육 실시·국제교류 지원과 동양의학개발 육성협의회를 설치하여 한의학발전연구사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였다. “의정3과”는 1981년 5공화국의 출범과 동시에 정부의 직제개편으로 다시 폐지되었다가 1993년 한약분생 당시 국회보건사회분과위원회의 결의(5월 17일)로 그해 정부는 보건사회부에 한방의료담당관실을 발족(6월 1일)시켜 한방의약의 현안문제를 다루고 있다.

(2) 한의학의 육성책

① 동양의학개발 육성협의회 발족

한의사제도가 확립된 이후에도 정부당국의 한의학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동서의학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한 조처의 일환으로써 한의계는 보사정책의 양의학 편파행정을 지적하면서 “의정3과”의 행정활성화와 정부한의육성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건의하여 “동양의학개발 육성협의회”라는 보건사회부장관 자문기구가 1976년 3월 24일 보건사회부 예규제359조(78. 9. 22 1차 개정)로 설치하게 되었다. 이 위원회의 설치목적은 동양의학의 제도개선과 과학화 및 개발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설치된 것이다.

그 동안 협의회가 추진한 주요사업은 아래와 같다.

- 한방기준처방 작성사업
- 한약재 지역특산성 조사사업
- 한방의서 고전번역 사업
- 동양의학연구기관 설치운영 모델연구

② 국민의료정책 심의기구의 설치

보건사회부를 비롯한 정부가 동양의학개발육성사업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정책적으로 사업을 착수한 것은 역시 보건사회부직제를 개정(1975년 8월 20일)하여 전담기구인 “의정3과”를 신설·반족시켜 6년간 설치·운영한 것이고, 그 후 국가한방정책전담기구 설치를 재론하게 된 것은 “국민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 비롯되었다. 이 기구는 1년간의 시효로 전 국민의료보험 실행위원회가 폐지되면서 1988년 4월 27일 발족되었다. 한방의료분과위원회의 주요 심의안은 한방의학발전에 관한 사항, 한방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기타 한방의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그해 6월 8일 보건사회부 대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

가 개최되었는데 당시 토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국립한의학연구소 설립안
- 국·공립병원에 한방진료부 설치
- 한방전문의제도 신설안
- 의료법상 한방보건지소의 범위 규정안
- 한방진료과목 추가 표시안
- 한의사국가시험과목 추가안
- 한방보건지소를 위한 관계법규 개정안
- 침구사범 부활문제
- 한의사의 진단서 발급문제

5. “국민의료원 한방진료부” 설치

양방의료분야에는 많은 국·공립기관과 대학, 연구기관이 국가재정으로 운영되며 국가공익시책에 효율적으로 기여해 오고 있으나 한방분야는 사학위주의 교육만으로 유지되어 온 실정에 따라 한의계는 70년대 이후 국립한과대학을 비롯한 국립한방병원·연구소 및 국가공무원 등용에 이르기까지 한방관련 국가기관의 설립 등을 계속 요구해 왔다.

정부는 한의계의 계속된 건의와 88년 국민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립의료원에 한방진료부 설치의 타당성을 결정하고 1990년 10월 13일 국립의료원직제를 개정(대통령령 제13, 137조)하여 국립병원 최초의 한방진료기관을 설립하고 1991년 5월 30일에 진료를 개시하게 되었다. 동 직제에는 기존의 제1, 제2, 제3 진료부 다음에 “한방진료부”를 두고 진료과는 1차로 한방과와 침구과로 하여 38명의 인원을 배치하였다. 현 진료기능을 보면 한방진료부장 아래 한방과와 침구과를 두고 5개의 외래 전문진찰실·한방요법실·조

제실·탕전실·의무기록실·수납원무실·간호사실 그리고 35개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레이저침 등 20종의 의료장비를 확보하는 것 외에 “도푸러”영상진단장치 등 최신 장비로 보강하고 있다.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의 특징은 양방의료 23개과 및 응급실과 상시 협진체계를 유지하여 모든 환자에게 한·양방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국립 유일의 종합병원으로서 각종 의료요원 교육, 훈련과정을 운영하며 “중풍교실”을 국내 처음 개설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강좌 “프로그램”을 매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6. 한방의료시범사업과 보험확대

우리 나라에서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70년대 이후 본격적인 의료보험도입이 검토되기 이전인 60년대에 이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최초로 명문화 시킨 것은 1963년 12월 26일에 제정했던 의료보험법이었다. 그후 사회적 여건의 성숙을 보아 1976년 12월 22일 의료보험법을 전면 개정한 후 1977년 7월 1일부터 처음으로 본격적인 의료보험시행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보험시행 준비과정에서 한방은 한약재 규격화와 수가체계의 미비라는 이유로 제외되었다. 이에 보건사회부는 동양의학개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보험제도의 준비사업으로서 1978년부터 81년까지 한방약재 규격통일 연구, 한방의료 실태조사, 한약재 유통수급체계 연구, 국산한약재 지역특산성 조사, 한방표준처방집 제정과 한약재 원가조사(266종) 등 보험에 필요한 기초작업을 실시하였다.

- (1) 한방의료보험 시범사업 실시
- 전면 실시보다 시범사업을 실시해 본 후

확대한다는 정부정책에 따라 1984년 12월 1일부터 1986년 11월 30일까지 2년간 충청북도 청주시와 청원군 지역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 182천명(전체 인구의 37%)을 대상으로 한방의료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2) 전국한방의료보험 확대실시

보건사회부는 1986년 9월 11일 한방의료제도협의회를 구성하고 한방의료제도, 한의학발전 및 한방의료보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다. 동 협의회 한방보험분과위원회는 한방급여종 진찰·입원·침구·부항·한방제제를 먼저 시행하고 침약에 대해서는 약과 관리대책을 마련한 후 보완하기로 결의하면서 시범사업의 종료와 전국확대를 의결·발표하였다.

이로서 한방의료보험은 1987년 2월 1일부터 전국 2,728개소의 한방의원과 19개의 한방병원에서 일제히 시작되었다.

(3) 보건소 한방진료 시범사업

1988년 보건사회부에 정책자문기구로 설치된 의료정책심의회의 한방의료제도 위원회에서 보건소의 한방진료제도 도입 건의에 따라 정부가 공중보건분야 한의사 활용 계획을 제정하면서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그 활용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1990년 3월부터 92년 12월까지 2개년간 강원도 춘성군 보건소, 전라북도 순창군 보건의료원과 경상북도 영양군 보건소 등 3개 보건기관을 선정, 한방진료 시범사업을 실시케하고 동사업의 추진계획과 실적평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맡게 하였다.

그 결과 보건소 한방수진실적이 높게 나타나 95년 이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전국의 각 보건소와 보건진료

원에 한방진료 실시가 상설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정부의 공중보건사업의 한의사 활용정책 추진의지가 부족하여 현재까지 현실화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의 조기해결을 위하여는 관계부처간의 협의와 관련법 개정 및 소요예산의 책정 등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III. 한의학교육과 발전과정

1894년(고종31년) 7월에 갑오개혁의 내각이 들어서면서 의사제도(醫事制度)에도 많은 변혁을 가져왔다. 이때의 의사 및 교육제도(醫育制度)는 일본의 서양의학적 지식에 의한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전통의학의 전승을 남겨두기도 하였다. 신정부는 위생국을 설치하면서 내부병원을 신설하고 1900년(광무4년) 1월에 내부령으로 “의사규칙(醫士規則)”을 공포하여 의사의 신분제도를 근대적으로 법제화하였다. 서의학과 동의를 병용하기로 하였으나 의사규칙을 시행하면서 의과와 약학의 전문교육 및 시험을 부과하는데 정책을 치중케하고 1904년 노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정부행정은 일본의 간섭이 강화되면서 변혁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일본은 1869년(명치2년)에 서양의학의 대학과 병원을 세우고 서의교육을 실시하였다. 1875년의 의사시험규칙을 공포하면서 서양의학에 국한함으로써 이때 이의 의료일원화를 하였으며 1880년에 이르러서는 일본국에 한의학의 육성은 완전히 봉쇄되었던 것이다.

1905년(광무9년)에는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면서 의료행정은 서의 일반체제로 변

모하게 되었다. 위생업무는 경부국에서 관장하고 일본의사를 초빙하여 각 기관병원과 경찰의(警察醫)들을 모두 일본의(日本醫)로 대체하니 이로써 우리 나라의 의료제도는 일본의 서의(西醫)체제로 대체되었다. 1905년(광무9년) 4월에 동의학을 재건하기 위하여 동의들이 세력을 규합하여 “동계의학고(東濟醫學校)”를 설립하고 한의학교육을 개강하였으나 3년만에 폐교되고 만났다. 그후 1930년후반까지 의생강습소(醫生講習所)가 있었으나 일본의 한의학 말살정책으로 완전히 문을 닫자 한의학교육은 도제식양성(徒弟式養成)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여 왔다. 따라서 광복후의 교육기관 설립운동과 동양의약대학의 설립과정 및 교과과정, 6년제 한의과대학 튜격, 한의과대학의 증설 및 대학원 설치, 한의학 교육방향의 시대적 변천 등을 살펴보겠다.

1. 동양의약대학의 설립과정과 교과과정

(1) 동양의약대학의 설립과정

1945년 12월에 조선의사회(朝鮮醫師會)는 동양의학전문학교 설립기성회를 구성하고 1946년 10월 4일에 미군정 당국으로부터 동양의학전문학원 인가를 받았다. 당시 학원장은 이병천(李炳天)으로 1946년 10월 10일에 남산의 옛 경성 신사 부속건물에서 강의를 시작하였다. 그후 다시 재단법인 행림학원 설립인가(문고발 제65호)를 받아 “동양의과대학관”설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미군정당국에서 정부가 수립된후 “동양의과대학관”으로 신청하고, 인가신청을 “의과”를 뺀 “동양대학관”으로 신청하여 줄것을 제안하여 1948년 3월 24일에 “동양대학관”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 대학은 문

고발 제12호로 인문학과와 동양의학과와 2개과로 된 수업연한 4년의 을중대학이었다. 1948년 4월 1일 초대학관장으로 박호풍(朴鎬豐) 전의(典醫)가 취임되었다. 그후 1950년 6. 25 동란으로 임시 휴교를 하였다가 1951년 국민의료법에 한의사제도가 제정됨에 따라 그 이듬해인 1952년 9월 15일에 “동양대학관”이 “서울 한의과대학”으로 승격되었으며, 1955년 3월 10일에는 “서울 한의과대학”이 다시 “동양의약대학”으로 개정인가되었다. 1955년 8월 1일에는 약학과가 증설되어 동양의약대학은 한의학과와 약학과와 2개과로 농서의·약학을 함께 전공하는 세계 유일한 대학이 되었다.

동양의약대학 한의학과가 경희대학으로 합병되기까지 배출한 졸업생수는 다음과 같다(표1).

표 1. 동양의대 한의학과 졸업생수(1955~1965)

졸업 연도	회수	인원수	졸업 연도	회수	인원수
1952	1	25	1959	8	87
1953	2	16	1960	9	91
1954	3	27	1961	10	82
1955	4	51	1962	11	96
1956	5	67	1963	12	125
1957	6	68	1964	13	140
1958	7	93	1965	14	192
총		1,160			

(2) 동양의약대학의 교육목적 및 교과과정

교육목적은 한의학의 지도적 인물을 양성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공헌하는데 두었는데 교과과정은 기초과목과 임상과목으로 나누어졌다. 기초의학분야로는 양방과목의 생리학·병리학·위생학·해부학·진단학 등이 있었고, 전공필수과목의 임상의학분야로는 한방과목의 處方학·부인과·내과·동서비교학·외과·오관과·상한론·소아과·침구학·경혈학·본초학·생약학 등이 있었으며 각 학과의 담당교수는 다음과 같았다(표2-1).

표2-1 동양의약대학(1955년)의 교과과목과 담당교수

교과목	담당교수	교과목	담당교수
진단학, 상한론	박호풍(朴鎬豐)	약물학	유시명(劉時明)
소아과	김영훈(金永勳)	부인과	김기택(金基澤)
본초학	신길구(申佶求)	침구학	이창빈(李昌彬)
내과학	김장현(金長憲)	위생학	홍성초(洪性初)

그 후 1960년도의 시간표를 보면 표2-2와 같다.

1960년부터 1963년까지 개설되었던 교과목을 보면 기초과목에는 한방생리·한방병리·한의학원론·본초학·양방생리·양방병리·약용식물학·한방진단학·양방진단학·해부학·미생물학·생화학·예방의학·전염병학·의식학·법의학 등이 있었고, 교양과목으로는 영어·수학·물리·법통·국어 등이 있었으며, 전공과목으로는 내과학 A, B, C, 부인과·

표2-2 동양의약대학(19060년)의
교과목과 담당교수

교과목	담당교수	교과목	담당교수
의경학(醫經學)	박호풍 (朴鎬豊)	내과학B· 생리학	이창빈 (李昌彬)
내과학 A	김장헌 (金長憲)	부인과· 내과학C	김기택 (金基澤)
진단학 A	홍성초 (洪性初)	한방개론· 국어	이계승 (李啓昇)
미생물·의사학· 한방원론	한승련 (韓昇鍊)	해부학	최진 (崔鎭)
내과학· 진단학A	권영준 (權寧俊)	진단학A· 병리학B	이경근 (李暲根)

소아과·침구과·상한론 등이 있었다. 그 후 내과학은 5장에 따라 간·심·비·폐·신으로 나누었다가 심계내과·간계내과·비계내과·폐계내과·신계내과 등으로 나누어졌다. 당시 담당교수를 보면 표2-3과 같다.

2. 6년제 한의과대학 승격과 경희대 학과의 합병

1961년 5.16 군사정부는 국민의료법을 전면폐기하고 의료법을 제정하면서 “국·공립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최종 2년간 한의학을 전공한 자에게 한의사국가고시자격을 인정한다”는 제도로 바꾸고 교육에 관한 임시 특례법 제3조 2항의 대학성비율을 적용하게 되어 당시 동양의약대학은 4년제 동양의약학교(1962년 3월 27일)를 병설하는 위기를 맞게 되면서 한의계의 정규 한의과대학 부활운동과 이에 직결되는 의료법 재개정요구 농성을 벌인 결과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문제의 의료법 제14조 2항을

국·공·사립을 불문하고 “의과대학에 한의학과”로 개정함으로 1964년 1월 21일 예과 2년, 본과4년의 역사적인 “동양의과대학(한의학과6년, 약학과4년)”이 부활하게 되었다.

그 이듬해 동양의과대학 행림재단과 경희대학교 고향재단이 합병(1965년 9월 3일) 되어 한의학과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한의학과로, 약학과는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로 각각 승격·발전되었다.

1968년에는 대학원에 한의학석사과정, 1974년에는 한의학박사과정이 설치되어 한의학의 위상이 크게 신장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85년도의 경희대학 한의과대학과 원광대의 교과과정을 조사하면 다음과 같다(표2-4).

3. 한의과대학의 증설

7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방의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전북 이리시(현 익산시)소재 원광대학교에도 한의학과가 인가(1972년 12월 26일)되면서 한의학과가 각각 한의과대학으로 승격되어 2개의 한의과대학이 설치되었다.

그후 78년부터 한의학과 전공대학이 증설되었는데 1978년에는 동국대학교, 1980년에는 대구한의과대학, 1981년에는 대전대학에도 한의학과가 개설되어 5개대학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80년대의 의료보험제도와 국민생활여건의 향상으로 의료수요가 급증하면서 의과계대학이 다수 증설되는 추세로 변화하여 80년대 이후에도 한의학과가 계속 증설·인가 되었는데 동의대(부산)·우석대(전주)·상지대(원주)·경원대(경기 성남)·세명대(충북 제천)·동신대(전남 나주)에도 한의학교육기관이 설치되어 현재 전국에 11개 한의과대학으로 확장되었

표2-3 동양의약대학(1960~1963) 교과과목과 담당교수

교과목	담당교수	교과목	담당교수	교과목	담당교수
한방생리	이창빈(李昌彬)	해부학	최진(崔鎭)	부인과	조명성(趙明聖)
한방병리	한세정(韓世靖)	미생물학	김정수(金殿壽)	소아과	조명성(趙明聖)
한의학원론	한승련(韓昇璉)	생화학	우원식(禹元植)	상한본	김장헌(金長憲) 박헌재(朴憲在) 왕화필(王熙弼)
본초학	백두현(白斗鉉)	정성분석	용재익(龍在益)	내과A	채인식(蔡仁植)
양방생리		약용식물학	유경수(柳庚秀)	내과B	안병국(安秉國)
양방병리	이경근(李暎根)	예방의학	허정(許程)	내과C	손석환(孫錫煥)
양방진단	이경근(李暎根)	전염병학	허정(許程)	한방진단학	권영준(權率俊)
의사학	한승련(韓昇璉)	범의학	주정훈(朱貞勳)	침구학· 경혈학	안정익(安貞翊)
약리학	한대섭(韓大燮)	내경	한동식(韓東錫)		

으며 앞으로 매년 700명씩 신규한의사가 배출하게 되었다. 11개 한의과대학의 설립 연도와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표3).

그러나 한의과대학은 신설사립대학에만 설립인가되어 한의학교육을 받을만한 교육 시설이 미비하고 재단의 투자가 부족하여 자주 학내 분규사태로 이어졌다. 따라서 한의학계에서는 국립한의과대학의 설립을 정부에 요구하였으나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다.

4. 한의학교육방향의 시대적 변천

갑신정변 후 미국인 의사 "알렌"의 권의로 해민원을 폐지하고 광혜원을 설립하면서 서양의학은 1900년대에 이미 우리 나라

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당시 의학 경향은 한의학을 고수하려는 전통적 학문 경향과 서양의 새로운 의학을 받아들여는 신진 학문경향으로 나누어졌다.

따라서 한의학교육에 있어서도 새로운 교육방법을 개발하여 현대적으로 교육하려는 신진소장학과와 고전중심의 전통적 교육방법을 고수하려는 노장학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한의학의 교육에서 서양식 현대교육방법과 같은 교육이 진행된 바 없었기 때문에 동양의약대학이 신설된 후 60년대까지는 교수진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자연히 고전적 교육방법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밖에 없었으며 교수진 역시 전의(典

표2-4-1 경희대학교 1975년도 교과과정

본1

교 과 목	1 학기		2 학기	
	시간	학점	시간	학점
교 의 학 영 어	2	1	2	1
(일·중·불·서어중택일)	2	1	2	1
원 한 방 생 리 학	4	2	4	2
한 방 생 리 학	6	3	6	3
목 초 학 실 습	4	2	4	2
해 부 학 실 습	2	1	2	1
해 부 학 실 습	6	3	6	3
조 직 학 실 습	4	2	4	2
조 직 학 실 습	2	1	2	1
양 방 생 리 학	2	1	2	1
양 방 생 리 학 실 습	2	1	2	1
양 방 생 리 학 실 습	2	0.5	2	0.5
양 방 생 리 학 실 습	2	1	2	1
양 방 생 리 학 실 습	2	0.5	2	0.5

본3

교 과 목	1 학기		2 학기	
	시간	학점	시간	학점
의 학 영 어	2	1	2	1
(일·중·불·서어중택일)	2	1	2	1
침 구 학	4	2	4	2
외 관 과 학	2	1	2	1
내 과 학 (I)	4	1.5	4	1.5
내 과 학 (II)	4	1.5	4	1.5
내 과 학 (III)	4	1.5	4	1.5
내 과 학 (IV)	2	1	2	1
상 한 학	4	1.5	4	1.5
사 부 인 과 학	2	1		
소 아 과 학	4	2	4	2
방 제 아 과 학	2	1	2	1
방 제 아 과 학	4	2	4	2
한 방 생 리 단 학	1	2	1	2
한 방 생 리 단 학	2	1	2	1
한 방 생 리 단 학			2	1
한 방 생 리 단 학			2	1

본2

교 과 목	1 학기		2 학기	
	시간	학점	시간	학점
의 학 영 어	2	1	2	1
(일·중·불·서어중택일)	2	1	2	1
한 방 병 리 학	8	4	8	4
한 방 병 리 학	6	3	6	3
경 경 혈 학 실 습			2	1
내 과 총 본 학	2	1	2	1
본 분 초 학 실 습	4	2	4	2
분 분 초 학 실 습	2	1	2	1
양 방 진 단 학 실 습	2	1	2	1
양 방 진 단 학 실 습	2	1		
양 방 리 학 실 습	4	2	4	2
양 방 병 리 학 실 습	2	1	2	1
미 생 불 학 실 습			2	1
미 생 불 학 실 습	2	1		
기 생 충 학 실 습	2	1		
기 생 충 학 실 습	2	1		

본4

교 과 목	1 학기		2 학기	
	시간	학점	시간	학점
침 구 학	4	2	4	2
외 관 과 학	4	2	4	2
내 과 학 (I)	4	2	4	2
내 과 학 (II)	4	1.5	4	1.5
내 과 학 (III)	4	1.5	4	1.5
내 과 학 (IV)	2	1	2	1
상 한 학	4	1.5	4	1.5
부 인 과 학	4	2	4	2
소 아 과 학	2	1	2	1
정 신 과 학	2	1	2	1
예 방 의 학 실 습	4	2	4	2
예 방 의 학 실 습	2	0.5	2	0.5
의 사 법 실 습	4	1	4	1
인 상 실 습			2	2

표2-4-2 1985년도 교과과정

예1

교 과 목	시간	학 점	
		1 학기	2 학기
국 어	3	3	
영 어	3	3	3
국 사	3	3	
민 윤 리	2	2	2
체 육	2	1	1
교 련	2	1	1
집 체 교 육		1	
인 문 계 과 목	3		3
수 학	3	3	3
일 반 물 리 학 및 실험	4	2	2
일 반 화 학 및 실험	4	2	2
일 반 생 물 학 및 실험	4	2	2
한 의 학 개 론 I·II	1	2	2
의 학 한 문 I	2		1
의 사 학 I	2		1

본1

교 과 목	시간	학 점	
		1 학기	2 학기
원 전 실 습	6	3	
생 리 학 및 실험	7	4	
해 부 학 및 실험	8	4	
조 직 학 및 실험	3	2	
생 화 학 및 실험	3	2	
신 초 학 및 실험	12	6	6
방 제 학 총 론	4		2
병 리 학 및 실험	7		4
수 경 혈 학 및 실험	4		2
예 방 의 학 및 실험	4		2
약 리 학 및 실험	4		2
양 방 생 리 학 및 실험	3	1.5	
미 생 물 학 및 실험	4		2
양 방 병 리 학 및 실험	4		2

예2

교 과 목	시간	학 점	
		1 학기	2 학기
체 육	2	1	1
교 련	2	1	1
집 체 교 육		1	
제 2외 국 어(중국어)	4	2	
사 회 계 과 목	3	3	
나 전 어	2	1	
의 학 동 계	2	1	
한 의 학 개 론 III	4	2	
의 학 한 문 II	4	2	
의 사 학 II	2	1	
발 생 학	2	1	1
비 교 해 부 학 및 실험 약 용 식	6	3	
물 학 및 실험	4	2	2
생 화 학 및 실험	4	2	2
본 초 학 총 론	2	1	1
원 진	6		3
생 리 학 및 실험	7		4
해 부 학 및 실험	8		4
조 직 학 및 실험	3		2
양 방 생 리 학 및 실험	3		1.5

본2

교 과 목	시간	학 점	
		1 학기	2 학기
병 리 학 및 실험	7	4	
경 혈 학 및 실험	4	2	
예 방 의 학 및 실험	4	2	
약 리 학 및 실험	4	2	
방 제 학 및 실험	4	2	
양 방 병 리 학 및 실험	5	2	
미 생 물 학 및 실험	4	2	
진 단 학	4	2	2
양 방 진 단 학	4	2	
내 과 총 론	2	1	
간 계 내 과	3		1.5
심 계 내 과	3		1.5
비 계 내 과	3		1.5
폐 계 내 과	3		1.5
신 계 내 과	3		1.5
상 한 론	3		1.5
침 구 허	6		3
부 인 과 학	4		2
소 아 과 학	2		1
외 과 학	2		1
안 의 과 학	3		1.5
신 경 정 신 과 학	2		1
사 상 의 학	2		1

본3

교 과 목	시간	학 점	
		1 학기	2 학기
간 계 내 과	3	1.5	1.5
심 계 내 과	3	1.5	1.5
비 계 내 과	3	1.5	1.5
폐 계 내 과	3	1.5	1.5
신 계 내 과	3	1.5	1.5
상 한 론	2	1	1
참 구 학	4	2	2
부 인 과 학	4	2	2
소 아 과 학	2	1	1
외 과 학	2	1	1
안 이 비 인 후 과	3	1.5	1.5
신 경 정 신 과 학	2	1	1
사 상 의 학	2	1	1
물 리 요 법	4	2	2
임 상 특 강	2	1	1
법 의 학	2		1
예 방 의 학	2		1

본4

교 과 목	시간	학 점	
		1 학기	2 학기
간 계 내 과	3	1.5	1.5
심 계 내 과	3	1.5	1.5
비 계 내 과	3	1.5	1.5
폐 계 내 과	3	1.5	1.5
신 계 내 과	3	1.5	1.5
상 한 론	2	1	1
참 구 학	4	2	2
부 인 과 학	4	2	2
소 아 과 학	2	1	1
외 과 학	2	1	1
안 이 비 인 후 과	3	1.5	1.5
신 경 정 신 과 학	2	1	1
사 상 의 학	2	1	1
물 리 요 법	2	1	1
예 방 의 학	2	1	1
보 건 법 규	3	1.5	1.5
병 원 관 리 학	2		1

표2-4-3 원광대학교 1985년도 교과과정

예2

교 과 목	1 학기		2 학기	
	시간	학점	시간	학점
한 의 학 개 론	1	1	2	2
의 학 영 어	1	1	2	2
원 전	2	2	3	3
본 초 총 론	2	2	3	3
비 교 해 부 학 습	2	2	2	2
비 교 해 부 실 습	1	1	3	3
본 초 학 습		2		3
의 학 영 어	1	1	2	2
의 학 사	2		2	
유 기 화 학		1		2
의 학 통 계	1		2	
발 생 학		1		2
동 양 철 학	2		2	

본1

교 과 목	1 학기		2 학기	
	시간	학점	시간	학점
원 전	2	2	3	3
본 초 학 습	3	3	5	4
본 초 학 실 습	1	1	3	3
본 초 방 생 리 학 총 론	4	3	5	4
본 초 방 생 리 학 실 습		1		2
본 초 방 생 리 학 실 습	2	2	3	3
본 초 방 생 리 학 실 습	1	1	3	3
해 부 학 실 습	3	3	4	4
해 부 학 실 습	1	1	3	3
조 직 학 실 습	2	2	2	2
조 직 학 실 습	1	1	3	3
조 직 학 실 습	1	1	2	2
의 학 영 어	1	1	2	2

본2

교 과 목	1 학기		2 학기	
	시간	학점	시간	학점
본 초 학	2	2	3	3
본 초 학 실 습	1		3	
한 방 병 리 학	3	3	4	4
경 혈 학	2	2	4	4
경 혈 학 실 습	1	1	2	2
내 과 총 론	2	2	3	3
한 방 진 단 학	2	2	3	3
양 방 진 단 학	2	2	3	3
양 방 병 리 학 및 실 습	2	2	4	4
기 생 충 학 및 실 습	1	1	2	2
전 염 병 학	1	1	2	2
약 리 학 실 습	2		3	
약 리 학 실 습	1		3	
방 제 학		1		2
미 생 물 학		2		3
미 생 물 학 실 습		1		3

본4

교 과 목	1 학기		2 학기	
	시간	학점	시간	학점
내 과 호 흡	1	1	2	2
내 과 순 환	1	1	2	2
내 과 소 화	2	2	3	3
비 뇨 생 식	1	1	2	2
상 한	1	1	2	2
부 인 과	2	2	3	3
침 구 과	3	3	4	4
소 아 과	1	1	2	2
방 제 학	3	2	4	3
한 방 외 과	1	1	1	1
오 관 과	1	1	1	1
정 신 과	1	1	2	2
사 상 의 리 학	1	1	2	2
임 상 병 리 학	1	1	2	2
방 사 선 학	1	1	2	2
병 원 관 리 학	1		2	
법 의 학		1		2
예 방 의 학		1		2

본3

교 과 목	1 학기		2 학기	
	시간	학점	시간	학점
내 과 호 흡	1	1	1	1
내 과 순 환	1	1	1	1
내 과 소 화	1	1	1	1
비 뇨 생 식	1	1	1	1
상 한	1	1	1	1
부 인 과	2	2	2	2
침 구 학	2	2	2	2
소 아 과	1	1	1	1
한 방 외 과	1	1	1	1
오 관 과	1	1	1	1
정 신 과	1	1	1	1
한 방 물 리 치 료	1	1	2	2
예 방 의 학	2	1	2	1
의 료 법 규	2	1	2	1
임 상 실 습	4	4	10	10
임 상 특 강		2		2

표3 11개 한의과대학의 인가년도와 소재지

년도	대 학 명	소 재 지	년도	대 학 명	소 재 지
1966	경희대학교	서울특별시	1986	동의대학교	부산직할시
1972	원광대학교	전북 이리시 (현 익산시)	1987	전주 우석대학교	전북 전주시
1978	동국대학교	경북 경주시	1987	상지대학교	강원 원주시
1980	대구한의과대학 (현 경상대학교)	경북 경산시	1990	경원대학교	경기 성남시
			1991	세명대학교	충북 제천시
1981	대전대학교	대전직할시	1991	동신대학교	전남 나주시

醫) 출신인 박호봉·김영훈을 중심으로 홍성초·김장헌 등이 주체가 되었다. 또한 교재에 있어서도 새로운 교재개발이 없이 고전 의서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였으며 60년대 이후에는 대만이나 일본을 통하여 현대 의학자들이 저술한 한방서적이 구입되어 이들을 참고로 새로운 교재가 편찬되기도 하였다. 일본한의학의 영향을 받은 교수로는 박헌재·노중휘 등이 있고, 대만한의학의 영향을 받은 교수로는 이창빈·김정수 등과 같은 학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한의학의 고전적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현대학적 방법으로 연구하려는 경향이었다. 당시 교육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한글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한문권 고전 의학을 이해시키느냐에 있었다. 이에 한의학 고전번역사업이 또 하나의 과제가 되었다. 1970년 이후 이러한 번역사업이 진행되어 『동의보감』, 『의학입문』 등의 번역서가 출판되었고, 79년부터 82년에 이르기까지 약3년간에 걸쳐 국가사업으로 『향약집성방』이 번역되었다.

당시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한의서

로는 조헌영(趙憲永)의 『동속한의학원론』이 있었으며, 그 후 노중휘(盧重輝)가 쓴 『백만인의 한의학』이 있었다. 한편 동서의학을 비교·연구하려는 학자들도 있었는데 여기에는 주로 한승련(韓昇璉)과 같은 서양의학자들이 있었다. 한 교수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의사학을 전공하면서 동양의약대학에서 의학과와 한방원론을 강의하였다. 그는 1963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동방의학에 있어서의 장기 및 기타 동물체 성분 요법에 관한 의과학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부제 논문으로는 「우리나라의 역병고」, 「근세 조선의 의료보호 사업과 구황정책」, 「『동의보감』의 서지학적 고찰」이 있다.

동양의약대학에 약학과가 증설되면서 한약에 대한 현대적 약리연구 및 분석학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므로 60년대까지 고전 중심의 교육방법은 점차 현대적 실험 방법으로 바뀌면서 한의학 연구에 대한 객관적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후 동양의대가 경희대학과 합병되고 또한 동서의학연구소가 개설되므로 한의학

교육은 점차 실험과 실습을 병행하는 실증 교육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IV. 한의학의 연구현황

1. 한의학회 결성과 학회활동

1952년 대한한 의사협회가 창설된 이래 3년뒤인 1955년 12월 4일 “동방학회”라는 명칭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출발하였다. 그후 “동방학회”는 그 명칭을 “한국 동양의학회”로 개칭되었다가 1962년 9월 20일에 대한한 의사협회 정관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한한 의학회”로 바꿈으로 현재의 한의학회가 정식으로 출범한 것이다. 초대 이사장에 최규만(崔圭晩)을 선출하고 첫 사업으로 1963년 5월 1일 『대한한 의학회보』 창간호를 발간하였으며, 1963년부터는 학술 강습회를 개최하였고, 1966년에 이르러는 고전정리사업의 일환으로 『동의보감』번역 사업과 한의학용어제정사업이 선정되었다. 또한 학회이사장은 전국순회 학술강좌를 통하여 한의사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한의학도서 출판사업 등을 독려하여 한의학지식을 보급하는데 전력하였다.

70년대에는 초창기의 기반을 토대로 보다 성숙한 방향으로 학술사업이 진행되어 갔다. 1970년에는 한방의학용어의 현대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보건사회부로부터 세계보건기구(WHO)에 제출한 「질병상해 및 사인 통계분류 병명제정」 사업을 의뢰받아 1,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한방병명을 처음으로 공식작성하여 1970년 7월 6일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한의사의 진단서작성이 국제적으로 공인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개정의료법에 의거

한 개업한의사 보수교육사업도 학회가 주관하여 1971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하였고, 한의학상제도를 만들어 학술연구의 의욕을 높였으며, 외국의 침구학자들을 초청하여 초청강연회를 가졌고, 1973년에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세계침구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1979년에 이르러 학회는 한방의료실태조사 등 정부의 동양의학개발 육성협력사업에도 깊이 참여하여 보건사회부의 예산지원으로 한의서 고전번역사업을 착수하였는데, 우선 『향약집성방』85권중 25권이 80년 말에 1차적으로 완역되었다. 번역내용은 국한문혼용, 처방의 용량은 그램(g)으로 바꾸어 표기하기로 하였다. 2차사업은 26권부터 50권까지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정부예산 부족으로 중단되었으나 이 번역사업은 북한보다 앞서 시작한 것이다. 또 1978년부터 1979년까지 한방의료 취약성을 보완하고 우수처방을 적극 발굴할 목적으로 『한방기준처방집』 발간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연구영역은 임상분야로 하고 대학교수를 연구위원으로 위촉하여 내과·외과·신경과·소아과·부인과·침구과에서 임상효능이 높은 것, 적도빈도가 높은 것, 치료효과가 우수한 것, 문헌적 근거가 확실한 것, 객관성이 인정되는 경험방을 집대성하는 것이었다. 이 사업은 착수한지 5개월만인 1980년 10월에 1,443방의 약물처방과 212방의 침구요법이 수록된 500면짜리 책자로, 내용을 살펴보면 『중경전서(仲景全書)』 이후 현대까지의 한의학문헌에서 수만의 처방을 분류·정리하여 현대의료체계와의 통일성·치료효과의 보편성·진료방면의 과학성에 맞도록 편찬하였다.

그후 1981년 8월에 보건사회부의 목제허가를 얻어 『한방기준처방집』이란 제목으로

대한한의사협회가 발간하였다. 이 『한방기준처방집』은 『동의보감』 편찬(1612년) 이래 정부지원에 의한 최초의 종합한방의료전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1986년에는 해방 후 지금까지 40년간의 한의학관계 저서 및 각종 논문을 총집합 정리한 『한국한의학술총람』이 당시 학회이사 한대희(韓大熙)의 주도로 편찬·출간되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제1편에는 원저·편저·번역서들, 제2편에서는 석·박사 학위논문들, 제3편에서는 일반논문·해외발표 논문들, 제4편에서는 임상증례 보고들, 제5편에는 증설·보고기록 인물·기타를 수록하고 부록에는 인명색인을 넣었다.

2. 분과학회

대한한의학회 산하에 각 분과학회가 1984년에는 11개이던 것이 현재는 20개 분과학회로 증설되었다. 각 분과학회는 연2회 학회지를 발간하여 학술집담회 및 학술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 대한한의학회 산하에 있는 분과학회는 다음과 같다(표4-1).

3. 국립한의학연구소 및 사설 연구기관

(1) 국립한의학연구소

한의학연구소는 1994년 10월 10일에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설치되어 개원

표4-1 대한한의학회 분과학회

창립년도	학 회 명	초대회장	창립년도	학 회 명	초대회장
1962	본초학회	이상인	1983	(물리요법학회)	입준규
1970	신경정신과학회	이 섭	1984	스포츠학회	김한성
1970	사상학회	홍순용	1986	방제학회	강순수
1970	침구학회	최용태	1987	맥진학회	길영성
1974	외관과학회	채병윤	1992	한약정보학회	고병희
1975	생리학회	김완희	1993	약침학회	강명자
1975	부인과학회	강효신	1993	추나학회	신준식
1975	소아과학회	구분홍	1993	의료기공학회	김기욱
1975	병리학회	문준선	1994	한방중앙학회	유기원
1975	내과학회	이종형	1994	영상학회	안구석
1983	원전외사학회	홍원식	1995	진단학회	이봉교

되었다. 한의학연구소 특별법상 주요산업으로는,

- 전래 한의학 관련문헌 및 한방이론에 관한 연구분석
- 한의학 발전을 위한 임상·실험연구
- 한약의 규격화 및 한약체제 개발에 관한 연구
- 침구학 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 국내외 전통의학 및 민간요법에 관한 연구
- 한방의료제도의 개선 및 정책개발 연구
- 한의학 연구에 관한 국제 교류사업
- 국내외 연구기관·단체 등과의 공동연구 및 정부·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사업의 수탁
-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연구소에는 임상공동연구를 위하여 부속 한방병원을 3년내에 설치·운영하고 운영재원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기본재산의 과실금, 용역 및 사업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연구소의 기본조직은 현재 기초의학연구부·한의학발전연구부·한약개발연구부 등 3개 부서에서 앞으로 임상연구부를 단계적으로 증설하여 4개부로 확대하고 1997년까지 총예산292억원을 투입하여 연구동1,000평·임상병동2,000평의 건물신축과 연구인력190명으로 예정하고 있다.

한국 한의학 연구소의 조직기구표는 다음과 같다(표4-2).

(2) 사립한의학연구기관

- ① 경희대학교 동서의학연구소
 - 1971년 2월 4일 개소

-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전통의학 연구협력센터로 지정(1987. 10. 7)

- 국제동서의학심포지움 개최
- ② 경희대학교 한의학고전연구소
 - 1987년 설립
 - 한의학 고전역서번역·발간과 원전의 사학연구

③ 재단법인 제한동의학술원

- 1971년 10월 25일 설립
- 동서의학의 비교연구
- 한의학의 과학화
- 예방의학 연구
- 『동서의학』지 발간

④ 재단법인 동양의학연구원

- 1973년 1월 22일 설립
- 동양의학의 학술탐구와 현대화 추진
- 동방의학의 국제교류 및 학술회의 개최
- 학술지 『동양의학』 정기발간

⑤ 원광대학교 한의학연구소

- 1989년 6월 29일 설립
- 기초의학·임상의학 및 전통의학 연구
- 한의학 학술세미나
- 논문집 발간
- 국제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⑥ 연세대학교 동서의학연구소

- 1994년 11월 재활병원원장 전세일
- 동서의학협진 목적

4. 학술대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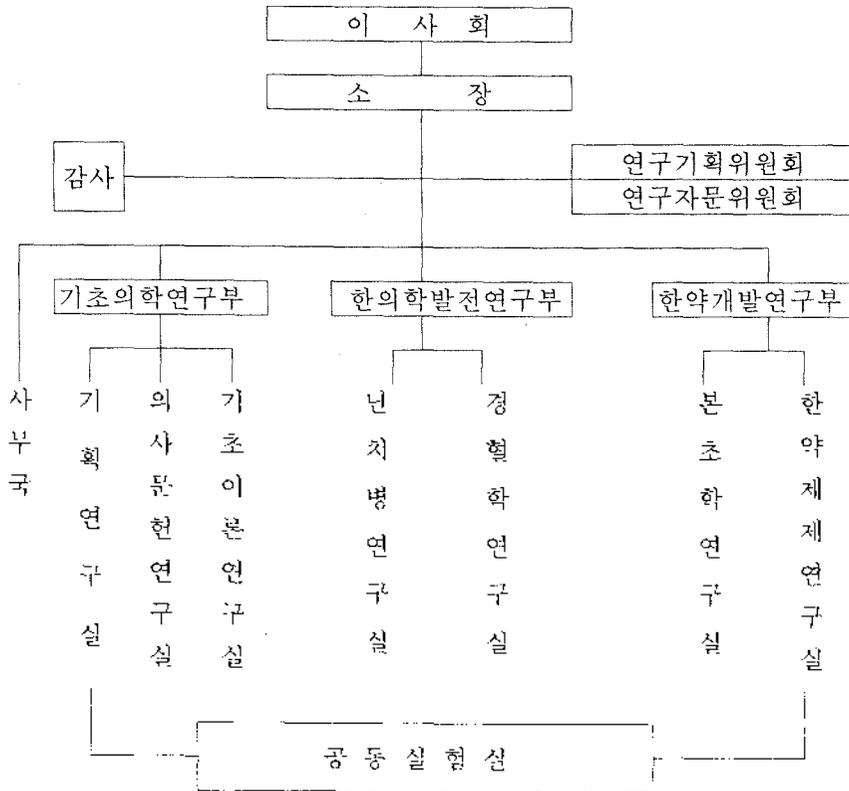
(1) 전국한의학 학술대회

1974년부터 금년까지 18회에 걸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개최일·장소·주제 및 발표논문수는 다음과 같다.(표5-1)

(2) 국제동양학술대회

1973년 9월 25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표4-2 韓國韓醫學研究所 組織機構表



“세계침구학술대회”가 2일간 서울 조선 호텔에서 개최되면서 국제학술활동이 활성화되었다. 세계침구학술대회는 그 이듬해인 1975년 2월 17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한국 등 20여개국이 참가하여 침구학에 대한 관심이 동양뿐만 아니라 구미 각국에까지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국제동향에 따라 한의사협회는 침구학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동양의학 학술대회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이듬해인 1976년 10월 28일 서울에서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를 개최한 후 서울에

서 “국제동양의학학회(International Oriental Society)”가 정식으로 발족되었으며 학회사무국은 한국의 대한한의학협회내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 개최일자·장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5-2).

5. 한국의학사 연구동향

(1) 한의과대학의 의학사 강의현황

60년대 동양의약대학 시절에는 한승련 교수가 2학년(당시 동양의약대학은 4년제였음)에서 주2시간 강의하였다. 강의 교재

표5-1 전국 한의학 학술대회 개최 연혁(1974~1995)

회수	개최일자	장소	주제	논문수
1	1974.10.25-26	경희대 중앙도서관	침구학술의 발전적, 중풍병에 대한 한방치료	40
2	1975. 9.25-26	부산 교육대학	동통에 대한 침구치료, 부인병의 한방요법	33
3	1977. 9.3 - 4	대구 시민회관	간장병의 한방요법, 당뇨병의 한방요법	21
4	1978.10.25-26	세종문화회관	중풍·고혈압의 동의학적 치료	35
5	1979.10.26-27	속리산 관광호텔	소이과질환의 한방치료	21
6	1982.10.12	신라 호텔	한의학의 현재와 미래	48
7	1983.10.15	광주 남도예술회관	싱인병과 한의학	39
8	1984.10. 6	전북 학생회관	한국 한의학의 재인식	16
9	1985.10.13	대전시 동아공고	생명현상과 한의학	20
10	1986.10.16	인천 시민회관	치료학적 측면에서 본 한의학	24
11	1987.10.17	마산 한일예실고	한위학과 의료보험	28
12	1989.10. 7	운천 실내체육관	한위학의 전승과 창조	11
13	1990.10.13	경희대 크라운관	면역기능장애의 한방요법, 알러지질환의 한방요법	9
14	1991.10.12	호텔 롯데월드	신경성신질환의 한방요법	9
15	1992.10. 3	대구 시민회관	21세기의 새로운 질병관과 한방임상 현대화에 대한 제언, 한방 물리요법의 현재와 미래	15
16	1993.10.23	광주동신전문대학 체육관	성인병과 사상체질의학	12
17	1994.10.24	롯데호텔	시대에 앞서가는 세계 속의 한의학	33
18	1996.11.9	적기문화예술회관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	123

표 5-2 국제 동양의학 학술대회 현황

회수	개최일자	개최장소
1회	1976. 10.28 - 30	한국 서울 신라호텔
2회	1980. 9.25 - 26	한국 경주 보문단지
3회	1983. 5.12 - 15	스위스 로잔
4회	1985. 10.19 - 25	일본 동경
5회	1988. 9. 7 - 9	한국 서울
6회	1990. 10.19 - 21	일본 동경
7회	1992. 11.20 - 22	대만 대북
8회	1995. 11. 3 - 5	서울 힐튼호텔

는 별도로 없었고 주로 진방현(陳邦賢)의 『중국의학사』를 중심으로 강의하였으며 한국의학사는 김두중 교수의 『한국의학사』를 교재로 하였다. 그후 동양의약대가 경희대로 합병된 후에도 계속 한승련 교수가 강의하다가 80년대에 이르러 원전교실의 홍원식(洪元植)교수가 맡았으며, 80년대 이후 중국의학서적이 수입되면서 가득도(價得道)의 『의학사략』을 중심으로 『중국의학사』를 편찬하여 강의하였다.

원전교실에서 의학사를 맡아 강의하므로 원전교실은 원전의사학 교실로 그 명칭을 바꾸었다.

각 대학의 의사학 강의 교수를 살펴보면 경희대학은 홍원식교수가 맡고 있다고 1994년에 한의학연구소 소장으로서 가면서 현재 김남일교수가 담당하고 있으며 원광대학교에서는 초창기에 임종국 교수(현재 동국대 침구학전공)가 맡았다가 강병수 교

수(현재 동국대 본초학교실)가 맡았으며 그후 정우열 교수(병리학전공)가 맡았다. 현재 원광대학교 교실주임교수는 맹웅재 교수로 강의는 박경남 교수가 맡고 있다.

대전대학에서는 경희대학 의사학교실출신인 윤창열 교수가, 경산대학은 김유성 교수(作故)를 거쳐 현재는 한국한의학연구소 기초연구부 의사문헌연구실 신순식 실장 겸 부장이 맡고 있으며, 동국대학은 박현국 교수가 맡고 있다.

그외 의사학 연구가로는 노중휘·이중형 교수가 있으며 이들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편찬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한국의학 부문에 집필을 맡았다.

(2) 한의학사에 대한 연구동향

한의학사에 대한 연구로서는 일제시 삼목영(三木榮)의 『한국질병사 및 문헌사』가 있으며, 김두중 교수의 『한국의학사』가 있다. 그 후 한승련·이영택 교수가 서울대학교 의사학교실에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후 의학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였으며 오히려 역사학쪽에서 손홍렬이 「고려시대의 의료제도사」를 발표하였을 뿐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한의학계에서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대학원에 의사학교실이 개설된 후 본격적으로 의사학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여기서는 주로 중국의학과 한국의학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중국의학연구에 있어서는 초창기에는 주로 의학자의 의학사상을 중심으로 하였고, 한국의학에 있어서도 한의학자들의 사상을 연구하여 민족의학의 재정립에 노력하였다.

최근 경희대학교 의사학교실에서 발표된 석·박사 학위논문과 한국한의학연구소 그리고 원광대학교 의사학교실에서 발표된

한의학사 관련논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경희대학교 원전의학 교실 연구논문현황

1. 표천근. 「『황제내경』에 나타난 유수수(兪髓輸)의 개념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학위논문, 1976.
2. 김적. 「이규준의 생애와 학설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학위논문, 1979.
3. 김중환. 「왕빙에 대한 연구」-왕빙의 『소문』에 대한 주석 및 편제의 개편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학위논문, 1980.
4. 엄익수. 「한국의사제도 변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학위논문, 1980.
5. 김적. 「한국 최근세 동양의학의 학술적 특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학위논문, 1981.
6. 최삼섭. 「이동원의 생애와 의학사상」.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학위논문, 1981.
7. 홍경표. 「한국 한의학교육의 변천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학위논문, 1981.
8. 이금준. 「일본 한의학 변천사에 관한 연구」-명치유신을 전후하여-.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박사학위논문, 1982.
9. 표천근. 「『황제내경』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박사학위논문, 1982.
10. 김태희. 「송대의학의 학술적 특징」.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

학위논문, 1982.

11. 송철호. 「하간의 생애와 의학사상」.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학위논문, 1982.
12. 윤창열. 「근원시대 의학의 학술적 특징」.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학위논문, 1983.
13. 박찬국. 「온병학 발달에 관한 문헌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박사학위논문, 1984.
14. 김인락. 「동양의학적 사관(死觀)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학위논문, 1984.
15. 이수완. 「명대의학의 학술적 특징」.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학위논문, 1984.
16. 허진. 「허준의 생애와 『동의보감』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학위논문, 1985.
17. 김중환. 「장개빈의 의학사상과 이론 비판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박사학위논문, 1986.
18. 송철호. 「금원사대가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박사학위논문, 1986.
19. 김우호. 「양생도인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학위논문, 1986.
20. 송음섭. 「장종정의 생애와 의학사상」.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학위논문, 1986.
21. 은종원. 「『황제내경』과 『중경상한론』의 의학사상적 연계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학위논문, 1986.
22. 김태희. 「『내경』의 맥진과 후대의가설의 비교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 한 의학과 박사학위논문, 1987.
23. 최삼섭. 「온병학 변증논치의 발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 의학과 박사학위논문, 1987.
 24. 정행규. 「『황제내경』 『소문』 『경맥별론』에 대한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학위논문, 1987.
 25. 이수완. 「근대 중국에서의 중의학 변천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박사학위논문, 1988.
 26. 유기덕. 「가금의 상한학설로 본 중경의 육경체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 의학과 석사학위논문, 1988.
 27. 정면. 「고려의학의 자주성에 대한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학위논문, 1988.
 28. 김인박. 「동양의학의 생사론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박사학위논문, 1989.
 29. 히진. 「『동의보감』의 변증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박사학위논문, 1989.
 30. 권건혁. 「『황제내경』 『소문』 『자열론』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학위논문, 1989.
 31. 권학철. 「상고시대와 고조선시대의 의학에 관한 문헌적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학위논문, 1989.
 32. 문희석. 「『황제내경』 『소문』 『평열병론』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학위논문, 1989.
 33. 박경남. 「고대 중국인의 자연관과 의학이론에 대한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학위논문, 1989.
 34. 신영일. 「삼국시대 의학에 관한 문헌적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학위논문, 1989.
 35. 옥도훈. 「『황제내경』 『소문』 『음양이합론』에 대한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학위논문, 1989.
 36. 김우호. 「기공학 발달에 관한 문헌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박사학위논문, 1990.
 37. 김남일. 「북한의 의료체계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학위논문, 1990.
 38. 신중완. 「일제침략에 의한 한방의료 제도 폐지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학위논문, 1990.
 39. 김규일. 「장경약의 명분학설에 관한 문헌적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학위논문, 1991.
 40. 임진석. 「『난경』교주-『난경』의 현대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학위논문, 1991.
 41. 권학철. 「『동의보감』을 통한 허준의 의학사상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박사학위논문, 1992.
 42. 김홍근. 「조선중기 의학의 계통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학위논문, 1992.
 43. 손창학. 「『삼화자향약방』의 간행시기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학위논문, 1992.
 44. 전태강. 「『내경』을 중심으로 한 체형의 비수에 대한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박사학위논문, 1993.
 45. 박종운. 「한의학 학위논문의 내용에 대한 조사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학위논문, 1993.

46. 배오성, 「금원사대가의 학설이 사상 체질의학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학위논문, 1993.

47. 송병찬, 「삼양삼음의 운기론적 이해」,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학위논문, 1993.

48. 이범용, 「한방의료보험에 대한 설문 조사와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학위논문, 1993.

49. 이용범, 「『황제내경』의 본수이론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학위논문, 1993.

50. 김남일, 「왕빙 소문 주석의 역학이론 활용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박사학위논문, 1994.

51. 백상룡, 「풍의 본질과 의학에서의 운용에 대한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학위논문, 1994.

52. 정창현, 「중경『상한론』의 육경실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학위논문, 1994.

53. 김규열, 「장남의 의역사상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54. 신영일, 「『향약구급방』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55. 은종원, 「『상한론』이 후세의학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56. 임진석, 「추주의 의학사상에 대한 연구」-약리설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57. 정면, 「금원사대가 의학이 조선조 의

학형성에 미친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58. 정행규, 「양생에 관한 문헌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59. 박세기, 「중경『상한론』의 육경병에 대한 내외본직 해석」,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학위논문, 1995.

60. 이광영, 「섭계의 온병학 이론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학위논문, 1995.

— 한국한의학연구소 의사문헌연구실 연구현황

1. 申舜植 외 8인, 『韓國韓醫學史 再定立』, 서울: 한국한의학연구소, 1995.

2. 申舜植, 「정대 온병학설의 성립 배경에 관한 연구」, 『醫史學』 1994: 제3권 제2호: 232-251.

3. 申舜植, 「『崑崙經脈』과 『靈樞』 『經脈篇』에 관한 비교연구」, 『21세기의 한의학』(제1회 한국한의학연구소 학술세미나), 서울: 한국한의학연구소, 1995: 99-149.

4. 申舜植, 「고려시대 이전의 韓醫學文獻에 관한 연구」, 『醫史學』 1995: 제4권 제1호: 45-66.

5. 崔桓壽, 「中國學 概論書의 構成內容에 대한 비교연구」, 『韓國韓醫學研究所論文集』 1995: 제1권 제1호: 29-46.

6. 申舜植·洪元植, 「『臨證指南醫案』에 관한 연구」, 『韓國韓醫學研究所論文集』 1995: 제1권 제1호: 47-68.

7. 申舜植, 「『언해태산집요(諺解胎産集要)』에 관한 연구」, 韓大熙 編輯, 『龜巖學報』, 서울: 醫聖許浚紀念事業

會, 1995: 제4호.

— 원광대학교 의사학 교실 학위논문

1. 김훈, 『『소문』 「탕액요례론」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학위논문, 1991.
2. 김석태, 「중요 상한서적 전산화를 위한 한자빈도수의 조사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학위논문, 1992.
3. 경인구, 「삼음삼양의 개념에 대한 비교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학위논문, 1992.
4. 진상구, 『『동의보감』전문의 전산화를 위한 한자 빈도수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박사학위논문, 1991.
5. 박경남, 「상한발열에 관한 연구」-성무기 『상한명리론』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박사학위논문.

※ 정우열 교수의 의학사에 관한 논문

1. 「불교의설이 한의학에 미친 영향」, 『동양의학』, 동양의약대학, 1962.
2. 「동무 이제마의 의학사상」, 『원광한의학』, 1991: Vol.1, 원광한의학연구소.
3. 「『동의보감』과 허준의 의학사상」, 『한국과학사학회지』, 서울: 한국과학사학회, 1991.
4. 「다산 정약용의 기사상에 대한 연구」, 『원광한의학』, 1992: Vol.2, 익산: 원광한의학연구소.
5. 「장덕국 동인에 대한 소고」, 『한국과학사학회지』, 서울: 한국과학사학회, 1993.
6. 「동무 이제마의 철학과 의학사상」,

『의학사』, 1994: 제3권 제2호, 서울: 대한의사학회.

7. 「『동의보감』 「신형장부도」와 허준의 의학사상」, 『구암학보』, 서울: 구암학회, 1995.

번역 : 馬伯英 著, 『中外醫學文化交流史』, 1995. 8 - 1996. 4

V. 한의학의 전망

그 동안 세계의학이 서양의학의 구도속에서 인간의 질병을 퇴치하는데 노력하였다. 그러나 사회환경과 문화의 발달로 지금까지의 의료체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새로운 질병들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라 노령사회의 보건·의료문제는 정신신체적·내분비·순환기계·골관절·암 등 만성성인병치료에 보다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1971년 닉슨이 중국 방문 이후 동양의학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으며, 80년대 이후로는 자연치료요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한의학이 전통의료로서 그 자체의 고유한 원리와 임상적 치료효과로 수천년에 걸쳐 우리 국민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하여 왔다.

동서의학은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과 환경·문화속에서 발달된 의학이지만 다같이 인류의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에는 다름이 없다.

이제 세계는 하나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동서의학의 협력체제는 자연발생적이다.

다만 연구방법에 있어서 서로 다른 학문적 체계를 어떻게 상호보완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제는 그동안 정부는 물론 서양의학자들이 한의학에 가졌던 편견이 불식되어야 하며, 한의학이해에 노력하여 동서의학자가 공동연구의 장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때 한의학의 미래는 밝고 또한 세계 의학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저자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한의학의 전망을 밝게 보는 것이다.

1. 세계의학의 연구경향 변화
2. 한의학에 대한 재인식 경향
3. 인구노령화에 따른 만성질환퇴치의 해결
4. 국민의 경제수준향상에 따른 장수육구
5. 화학약품에 대한 부작용

VI. 결론

광복후 지금까지 50년간의 한의학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한의학사는 갑오개혁후 서양의학이 들어오면서 수난과 투쟁으로 얼룩진 역사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꾸준히 민족의학으로 한학을 지켜온 한의학계의 자생적 노력은 한국의학사에서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동서의학자가 이땅에 공존하면서도 서로 반목한 역사를 겪어 온 것은 우리 모두의 불행이다. 이제 동서의학자는 하나가 되어 한국의학이 나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직시하고 세계의학의 주도자로 나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몇가지 제안을 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당국은 동서의학의 균형적 발

진 의료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동서의학자들은 그동안 갖었던 아집에서 벗어나 상대학문을 이해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각 의과대학에서는 과감히 한의학에 대한 강좌를 개설하여 동서의학연구에 기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각 연구소에서는 동서의학자들의 공동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그동안 의학계에서는 한국의학사연구가 서양의학편향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동서의사학자가 함께 한 『한국의학통사』의 편찬을 제의하는 바이다.

색인어 : 한의학, 한국한의학연구소, 한의사협회, 한의학회, 동양의학대학, 동제의학교

참고문헌

1. 이종형. 『한국의학사』. 『한국현대문화사대계Ⅲ』. 서울: 고대민주문화연구소, 1978.
2. 김두중.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1982.
3.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40년사』. 1989.
4. 기창덕. 「서양의학교육의 효시」, 『의사학』, 1992; 제1권 제1호, 서울: 대한의사학회.
5. 송경섭. 「한의학의 발전과정과 사회기여도에 관한연구」. 『경산대학교대학원 논문집』, 1995.
6. 정우열. 「광복50년의 '한의학사'연구」.

『의학사』 제4권 제2호. 서울: 대한의사학회, 1995.

7. 기창덕. 『한국근대의학교육사』. 서울: 아카데미아, 1995.

Abstract

Prospect and development of oriental medicine in Korea

Woo-Yeal Jeong, O.M.D, Ph.D*

The policies of oriental medicine, changes of medical systems, development of oriental medical education and research activities of oriental medicine were reviewed in this paper from 1945 to 1995 and several opinions were suggested to relevant government authorities and doctors of oriental and western medicine.

The history of oriental medicine had to come a long and winding road since the Political Reform in 1894. However, national effort of oriental medicine people in Korea has kept the oriental medicine as national medicine. It has been a misfortune that oriental and western medical doctors did not get along well each other.

In this paper, the right direction of the medical systems for government were suggested together with timely roles of medical doctors of both oriental and western medicine.

1. Government should carry out reasonable and future-oriented medical systems.
2. Medical doctors of both oriental and western medicine should co-operate and try to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3. Oriental medicine should be lectured in western medical college.
4. Medical researches of both oriental and western medicine should be carried out together.

● Key words : Oriental medicine,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Association of Korea oriental medicine, Korean oriental medical society, oriental medical school, Dongjae medical school

* Department of Path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 Kwang University